

도보여행자의 특성 규명:지리산둘레길 이용자를 중심으로

강미희¹ · 정 휘^{2*}

¹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²환경계획컨설팅(주)이룸

Identification of Trekkers' Characteristics:Focusing on Jirisan-round Trail Users

Mihee Kang¹ and Jung Hui^{2*}

¹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712-749, Korea

²Environment Planning & Consulting Group Erum, Inc., Gunpo 435-842,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지리산둘레길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행 특성 그리고 도보여행의 동기와 태도를 파악하여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리산둘레길을 방문한 19세 이상의 도보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026명으로부터 유효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도보여행자는 중년이상의 연령층과 고학력 및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소규모 여행집단으로 여행전에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 감상, 이해, 체험을 위한 지적·미적 추구 동기와 책임 있는 여행자로서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태도를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더 적극적인 참여와 자연지향적이며 문화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여행태도 그리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과 이러한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시장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각 집단의 특성에 기반하여 생태관광객 집단과 자연관광객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책임 있는 도보여행문화를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Jirisan-round Trail trekkers' socioeconomic and travel characteristics, travel motivations, and travel attitudes. On-site and email surveys were carried out from July to November of 2008 and a total of 1,026 individuals' data were analyzed.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ntages of middle age users, highly educated, and professionals/managers were relatively higher among trekkers of Jirisan-round Trail. And they traveled with a small group, collected destination-related information before traveling, and show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Especially they had not only strong motivations for admiring,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the nature but also positive travel attitudes. Based on the results of a cluster analysis, the trekkers of Jirisan-round Trail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cotourists and nature tourists. The ecotourists group showed relatively enthusiastic participation, more nature-oriented and culturally sensitive travel attitudes, and a higher satisfaction. The results would be used for establishing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for building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responsible trekking culture.

Key words : Jirisan-round Trail, trekking, travel motivation, travel attitudes, ecotourists, nature tourists

서 론

최근 들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연 지역 탐방을 통해 수려한 경관을 즐기고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도보여행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와 여성의 여가시간 증대와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산림청(2007)의 보고에 따르면 등산객의 95%가 걷는

활동 위주의 가벼운 산행에 참여한다. 2007년 9월에 제주도의 올레가 첫 코스를 개장하고 연이어 2008년 4월에 지리산둘레길 일부가 시범 개통되면서 장거리도보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관련 동호회 및 도보여행 패키지 상품의 개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보여행의 증가는 자연체험과 건강·웰빙을 추구하려는 수요변화를 의미하며,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가족, 동호인 단위의 체험형 여행문화 확산, 그리고 생태관광(ecotourism)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

*Corresponding author
E-mail: koreantrails@gmail.com

석되었다. 도보여행자들은 기존 대중관광객들과 달리 소규모의 자유 여행, 자연지역과 오지 방문을 선호하며, 환경에 대한 보건의식이 높고, 건강 및 여유로움을 즐기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또한 도보여행의 기반시설인 트레일 조성이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녹색관광의 정책방향인 저탄소형 관광활동 진흥이 있다. 즉 트레일이 대중교통이용 및 도보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활동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전제로 하는 생태관광기반시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트레일을 이용하는 도보여행자들에게 대안적 관광활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도보여행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보여행의 붐을 일으켰다 할 수 있는 제주올레나 지리산둘레길 역시 의도하지 않은 과도한 방문객에 홍보에 힘입어 관광버스를 타고 밀려드는 관광객들에 의해 환경훼손은 물론 지역주민의 사생활침해 그리고 사유재산 침범 등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보여행을 위한 수많은 길 조성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 사업과 환경부의 생태문화탐방로 사업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명품녹색길 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도보여행을 위한 길 조성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도보여행은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즐기고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소규모의 개별여행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생태관광이나 공정여행 등과 같이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의 형태로 인식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보여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보여행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들의 동기와 선호에 기반을 두면서 동시에 자연과 문화를 보전할 수 있는 관리전략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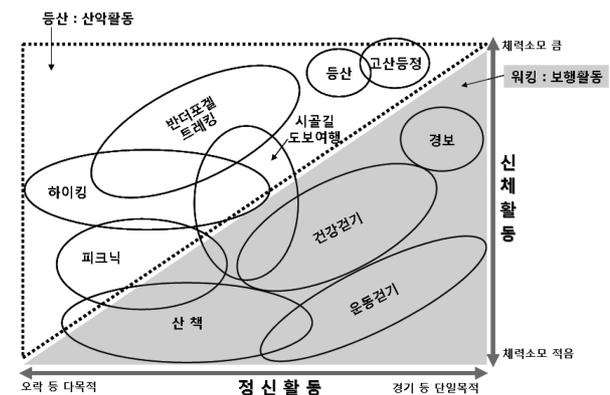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는 걷기여행열풍에도 불구하고 도보여행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상태에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 올레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용특성을 조사한바 있으며, 환경부(2007)가 탐방수요예측을 위해 도보여행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2010)는 제주올레 관광객 특성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도보여행자의 여행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도보여행자의 이용특성 및 여행 동기와 태도, 사회경제적인 특성 분석은 향후 도보여행길의 조성, 운영, 관리 등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적합한 시설,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이 이루어 질 때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여행 특성을 조사하고 도보여행의 동기와 그들이 여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태도를 기반으로 시장세분화를 실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집단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친환경적인 책임 있는 도보여행문화를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고찰

도보여행은 신체활동인 걷기를 통해서 여행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의 관광자원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트레킹, 하이킹, 백패킹, 도보순례, 생태탐방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도보여행을 위해 산을 오르거나 천천히 걸거나 할 수 있어 등산이나 산책 등의 활동도 포함된다. 일본자연환경연구센터(2002)에서 제시한 신체활동과 정신활동을 기준으로 한 활동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도보여행은 다목적성과 체험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골길 도보여행, 트레킹(trekking), 반더포겔(Wandervogel) 정도에 위치시킬 수 있다. 시골길 도보여행이란 말 그대로 시골에 있는 길을 걸으며 여행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트레킹은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달구지를 타고 수림지를 찾아 집단 이주하던 행태에서 비롯된 말로 지금은 ‘고행하면서 하는 여행’, ‘집단여행이나 탐험’, ‘도보여행’을 의미하며, 미국이나 유럽등지에서는 험난한 고산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모험레포츠를 의미한다. 반더포겔은 트레킹 활동 중의 하나로 독일에서 시작한 독일 청소년 도보 여행 단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다른 스포츠처럼 승패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생소한 산이나 들관 등을 걸으면서 자연을 접하고 견문을 넓힘으로써 건전한 인



출처 : 원전은 일본 자연환경연구센터(2002)로 오규균외(2005)에서 재인용

그림 1. 신체활동 및 정신활동 수준에 따른 도보여행 분류.

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다.

도보여행은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또 그들과 인간과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서로가 맺고 있는 관계나 속성들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며(김정아, 1996), 이를 통해 여행지역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의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된다. 최근 지리산둘레길을 포함한 도보길에서 나타나는 여행 패턴과 행태를 보면, 주로 오지 자연지역으로의 방문,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자연에 대한 고려, 다양한 문화체험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 생태관광 등의 대안관광에서 요구하는 책임 있는 여행요소들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친환경적이며 사회문화적으로 책임 있는 도보여행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동기 충족이 가능한 활동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동기의 충족이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달성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행에 참여하는 동기는 서로 다른 유형의 여행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여행동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나 그에 따른 경험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구들이 여행자의 여행동기를 알고자 시도하였다. 경험적 차원에서 여행동기를 이해하고자 했던 연구(Driver, 1977; Beard and Ragheb, 1983; Parrinello, 1993)와 이론을 기초로 한 여행동기 연구(Dann, 1977; Iso-Ahola, 1980; Woodside and Jacobs, 1985; Cha *et al.*, 1995) 등이 있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며,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또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애쓴다(Mayo & Jarvis, 손대현과 장병권 역, 1991). Calvo(1971)는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개인의 지적, 정신적 구역의 벽을 넘어 서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며 탐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안전, 사랑, 존경의 욕구만큼 기본적이고 강력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여행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행자가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방문하는 혹은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지의 형태, 매력 또는 특성을 여행자가 선호하는 곳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된다. 여행자의 동기는 그들의 여행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유광민과 김기완, 2008; 여호근 등, 2009).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보여행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보여행 참여 동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한편 연구자들은 태도가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송용섭, 1987) 하에서 여행태도를 측정하고자 노력해왔다. 태도 특히 특정 행동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닌 행동 자체에 대한 태도로부터 행동의도와 실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음은 Fishbein과 Ajzen(1975)의 논리적 행

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나 이후 수정 제안된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등의 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들(김성일, 1991; 강미희와 김성일, 1996; 홍성권, 1998; 송영민, 2005; Ajzen and Fishbein, 1980; Ajzen and Diver, 1992)에서 검증된 바 있다. 여행에 있어서 친환경적 행동을 비롯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중요시되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생태관광의 성장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여행행동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ansfeld와 Ginosar(1994)는 여행자의 행동이 대상지의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국내에서도 고동우(2000; 2006)와 여호근과 강승구(2002) 등이 관광객의 환경의식과 환경태도 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고동우(2006)는 여행자의 친환경태도를 유발하기 위하여 환경광고의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경에서 상황요인의 조작이 쉽지 않고, 모든 환경이 통제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행자의 태도 파악은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환경적 세계관 이론에 기초하여 Catton과 Dunlap(1980)이 개발한 신환경패러다임(New Environment Paradigm)척도는 환경태도 측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환경태도연구들은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창출에 중요한 중재변수로서 세계관, 즉 외부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Bragg, 1996). 환경태도가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처럼 여행과 관련하여 자연과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여행자의 태도는 실제 여행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도보여행이 이루어지는 대상지의 경우 그동안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옛길들을 복원하여 연결하였거나, 소규모 지역사회들을 서로 연계하는 마을간 연계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다른 지역들보다 자연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여행태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자원의 보전이라는 과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에서 오지트레킹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초기 도보여행(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행태도를 조사한 연구(강미희, 1999; 강미희 등, 2002)에 의하면, 생태관광객은 일반 국립공원방문자나 주로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테마여행에 참여하는 자연관광객에 비하여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고 교감하며 배우고자 하는 여행태도를 보였다. 여행행동을 유발하는 근본 요인을 구명하고 여행행동을 설명, 예측하기 위해서는 동기와 태도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며, 관광객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태도나 동기를 통해 관광객을 이해하는 것은 활동적 접근(activity approach)의 오류를 벗어난 행동적 접근(behavioral approach)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보여행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여행 동기와 태도의 분석은 보다 실증적 연구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방법

조사대상지인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환형으로 연결하는 장거리 도보여행길로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100여개 마을에 걸쳐 있으며, 총 길이는 300 km에 이른다. 2007년부터 5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간별로 정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구례 구간을 끝으로 전체 환형의 도보여행길이 완성된다. 지리산 주변의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을 연결하고 국가가 지원하여 조성된 제1호 장거리 도보여행길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공식 개장하였으며 현재 제주올레와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도보여행길 중의 하나이다.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리산둘레길 방문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와 이메일설문조사를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현장설문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조사당시 운영되고 있던 매동마을에서 금계, 세동마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구간내 조성된 지정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메일설문조사는 지리산

둘레길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이메일을 남긴 사람들과 지리산둘레길안내센터 방문자 기록지에 이메일을 남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9세 이상의 참여자로부터 현장 551부와 인터넷 475부를 얻어 총 1,026부의 유효한 응답 자료를 얻었다.

설문지의 항목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여행특성을 묻는 항목 이외에도 여행 참여 동기를 묻는 질문과 여행태도척도가 포함되었다. 동기척도는 강미희 등(2002)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여행태도척도는 국내 및 국외 자연관광객과 생태관광객 등에 적용하여 그 신뢰성이 검증된 Kang and Moscardo(2006)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여행 특성, 동기 및 여행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동기 및 태도에 근거한 시장세분화를 위한 군집분석과 세분화된 군집의 차이 검증을 위한 일련의 교차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도보여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여행 특성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여행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는 40대 이상이 과반수를 넘고 고학력자가 많으며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타 직업에 비하여 높게 나온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방문비율이 높지만 지리산둘레길 방문은 처음이며 사전에 정보수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행만족도와 재방문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지리산둘레길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사회경제적 · 여행 특성.

변수	구성(퍼센트)	변수	구성(퍼센트)
성별	남(48.8) 여(51.2)	총여행기간	당일(42.1) 1박2일(41.7) 2박3일(13.5) 3박이상(2.7)
연령	10대(2.3) 20대(11.1) 30대(27.4) 40대(36) 50대(18.8) 60대이상(4.4)	지리산둘레길 체류기간	당일(57.2) 1박2일(36.5) 2박이상(6.4)
결혼	미혼(33.1) 기혼(66.9)	교통수단	자가용(56.5) 버스(31.8) 기차(4.2) 기타(7.4)
학력	고졸이하(11.8) 대재(3.1) 대졸(64.5) 대학원이상(20.7)	여행전 관련 정보수집	예(95.3), 아니오(4.7)
직업	서비스업(5.5) 공무원/회사원(34.7) 주부(12.8) 학생(3.0) 자영/사업(13.3) 전문/관리직(15.9) 기타(14.1)	지리산둘레길 방문경험	처음방문(80.8) 2~3회(13.6) 4회이상(5.6)
		지리산둘레길 만족도	4.06점
월소득	200만원미만(21) 200~300만원(28.4) 300~400만원(18.7) 400~500만원(12.1) 500만원이상(19.8)	지리산둘레길 재방문의도	있음(96.9), 없음(2.8)
동반 유형	가족/친척(28.1) 친구/연인(27.4) 동료(16.1) 혼자(13.1) 계모임/단체(10.2) 기타(5.1)	도보여행경험	처음(44.8) 과거 몇 번(42.8) 정기도보여행참여(12.4)

2.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여행 동기와 태도

지리산둘레길을 찾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지적·미적 추구 동기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여행동기가 휴식/도피인 것에 비해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 집단에서는 알고자 하는 동기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고자 하는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6개의 여행 동기 중 존경 동기에 속한 ‘성취감이나 모험을 즐기기 위해’와 소속/사랑 동기에 속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라는 두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등산행동에서 관찰되는 정상정복형 또는 체력증진과 관계되는 동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관광객은 대중관광객에 비하여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체험하며 배우는 데 관심을 갖고 여행중에도 적극적으로 야외활동에 참여하며(Kretschman and Eagles, 1990; Dearden and Harron, 1994; Meric and Hunt, 1998), 안전이나 존경보다는 성취와 도전에 더 가치를 둔다(Diamantis, 1998). 본 연구의 도보여행자 역시 자연을 감상하고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적극적 야외활동 등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생태관광객의 특성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보여행자의 여행태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이상의 응답을 받아 평균 4점 이상을 나타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85.95로 동일 척도로 측정된 과거의 여행 집단들의 태도점수(강미희, 1999; 강미희 등, 2002; Kang and Moscardo, 2006; 강미희 등, 2006)보다 더욱 높은 친환경적 여행태도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 자연보호규칙을 준수하고 주민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친환경적인 여행 상품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들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반면 여전히 긍정적인 점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표 3.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여행태도.

항목	평균
여행지 사회적 규범/규칙 준수가 좋다고 생각	4.58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여행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42
내가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	4.50
여행지 자연보호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72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71
친환경적인 여행 상품과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62
여행중에 환경교육/해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15
여행지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28
여행지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52
내가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여행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	4.37
자연훼손이 쉬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4.24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을 미리 알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20
여행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38
여행지 주민과의 교류기회를 통해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	4.25
총점(100점 만점 환산)	85.60

주: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함

표 2.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여행동기.

동기요인	동기항목	평균
휴식/도피	스트레스 해소 및 긴장완화를 위해	4.01
	일상탈출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4.19
건강/활동	건강증진을 위해	3.94
	야외활동을 위해	3.83
소속/사랑	가족, 친구, 동료 등과 친목 도모를 위해	3.79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2.80
존경	성취감이나 모험을 즐기기 위해	3.34
자아실현	자기계발을 위해	3.61
	나를 되돌아 볼 기회를 갖기 위해	3.98
지적·미적 추구	자연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4.16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4.40

주: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함

가장 낮은 태도점수를 보인 항목은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이나 환경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지만 꼭 교육 혹은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 시장세분화

지리산둘레길을 방문한 여행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여행태도 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외형적으로 도보여행자라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요구하는 경험이나 활동이 서로 다른 집단의 존재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여행특성 그리고 여행동기와 여행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

표 4.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분석 결과.

항목	군집1 (자연관광객)	군집2 (생태관광객)
표본 수	326명(33.5%)	647명(66.5%)
태도점수(100점환산점수)	70.68	93.19

는 전체적으로 생태관광객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태관광지가 오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방문되는 것과는 달리 지리산둘레길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한 곳으로 대중의 방문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특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과는 차이가 있는 여행자가 방문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 집단 내에서 다시 몇 개의 세부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인 Agglomerative Hierarchical Method(AHM)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Agglomeration Schedule상에 나타난 계수의 증가추세를 근거로 정지규칙(stopping rule)을 적용하여(Hair et al., 2006) 2개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응답자를 군집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비계층적 분석방법인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친환경 여행 태도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군집 1)과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군집 2)으로 구분하였다(표 4 참조).

두 집단의 여행태도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집단의 성격은 선행연구(강미희, 1999; 강미희 등, 2002; 강미희 등, 2006)에서 제안하는 자연관광객과 생태관광객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집 2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생태관광객의 여행태도 점수였던 82.67점(강미희, 1999)이나 78.1점(강미희 등, 2002)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여 환경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책임 있는 여행자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여행태도를 기준으로 구분된 두 개 집단이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여행 특성, 만족도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여행 특성의 경우, 군집2(생태관광객)는 군집1(자연관광객)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40대, 50대의 참여가 높고, 단체형태의 비율이 낮은 반면 가족이나 친구 등 소그룹의 가까운 이들과 방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생태관광객 집단은 지리산둘레

표 5.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간 사회경제적 · 여행특성 비교.

항목	군집1(자연관광객)	군집2(생태관광객)	χ^2 값
연령	10대(4.1) 20대(12.9) 30대(29.5) 40대(33.2) 50대(15.4) 60대이상(5.0)	10대(1.4) 20대(10.7) 30대(27.3) 40대(36.6) 50대(19.9) 60대 이상(4.1)	11.117*
동반유형	가족/친척(25.5) 친구/연인(23) 직장동료(20.9) 계모임/단체(15.6) 혼자(10.4) 기타(4.6)	가족/친척(28.7) 친구/연인(29.0) 직장동료(14.4) 계모임/단체(11.9) 혼자(10.4) 기타(5.6)	11.760*
방문전 지리산둘레길 정보수집여부	정보수집함(93.2) 수집안함(6.8)	정보수집함(96.2) 수집안함(3.8)	4.305*
거주지로부터의 소요시간	1시간이내(8.0) 1~2시간(22.1) 2~3시간(19.6) 4~5시간(50.3)	1시간이내(3.1) 1~2시간(19.0) 2~3시간(19.7) 4~5시간(58.2)	14.607**

주 : 괄호안은 %를 나타냄
*p < 0.05 **p < 0.01

표 6.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간 만족도 비교.

항목	군집1 (자연관광객)	군집2 (생태관광객)	t 값
지리산둘레길 총 만족도	3.80	4.19	-7.580***
안내시설	3.50	3.96	-7.176***
비포장길 노면상태	3.64	4.07	-7.248***
포장길 노면상태	3.44	3.83	-6.245***
길의 경사	3.53	4.02	-8.023***
길의 길이	3.67	4.19	-9.235***
숲속 길의 폭	3.64	4.17	-9.222***
길의 안전성	3.62	4.11	-8.696***
휴식시설(벤치, 쉼터 등)	3.18	3.71	-7.573***
편의시설(음용수, 화장실 등)	2.50	2.75	-3.394**

주 :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
p < 0.01 *p < 0.001

길을 방문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8개로 구분한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두 군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생태관광객 집단(4.19점)이 자연관광객 집단(3.80점)보다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시설, 노면 상태 및 편의시설 등 총 8개 측면의 시설 만족도에 있어서도 생태관광객 집단이 자연관광객 집단보다 높은 만족도를 일관되게 나타냈으며, 모든 항목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여행동기에 있어서도 모든 항목에서 두 군집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군집2(생태관광객)는 모든 동기항목에 있어서 군집1(자연관광객)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지적·미적 추구요인만 보더라도 군집2(생태관광객)가 자연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자 하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계발하고자 하는 동기 역시 더 강해 군집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군집2(생태관광객)에 속한 이용자들이 더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여행동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이며 사회문화

표 7.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간 여행동기 비교.

동기요인	동기항목	군집1 (자연관광객)	군집2 (생태관광객)	t값
휴식/도피	스트레스 해소 및 긴장완화를 위해	3.63	4.18	-8.095***
	일상탈출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3.73	4.40	-5.026***
건강/활동	건강증진을 위해	3.64	4.08	-6.655***
	야외활동을 위해	3.53	3.97	-6.274***
소속/사랑	가족, 친구, 동료 등과 친목 도모를 위해	3.55	3.90	-4.292***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2.50	2.94	-5.260***
존경	성취감이나 모험을 즐기기 위해	3.03	3.48	-5.793***
자아실현	자기계발을 위해	3.18	3.82	-8.502***
	나를 되돌아 볼 기회를 갖기 위해	3.58	4.17	-8.836***
지적·미적추구	자연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3.73	4.36	-10.782***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3.97	4.61	-11.252***

주: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함
***p < 0.001

표 8. 지리산둘레길 도보여행자의 군집간 여행태도 비교.

항목	군집1	군집2	t값
여행지 사회적 규범/규칙 준수가 좋다고 생각	4.04	4.85	-15.505***
여행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여행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87	4.70	-16.550***
내가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	3.87	4.81	-19.839***
여행지 자연보호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25	4.95	-15.157***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19	4.98	-17.209***
친환경적인 여행 상품과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4.11	4.88	-15.099***
여행중에 환경교육/해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54	4.48	-18.781***
여행지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67	4.60	-20.705***
여행지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91	4.82	-21.537***
내가 지출한 여행비용 중 일부가 여행지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	3.68	4.72	-22.440***
자연훼손이 쉬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3.66	4.55	-15.169***
여행지 주민의 생활방식을 미리 알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53	4.54	-21.356***
여행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3.71	4.72	-26.173***
여행지 주민과의 교류기회를 통해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	3.56	4.61	-22.394***
총점(100점 만점 환산)	70.68	93.19	-30.321***

주: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형 척도로 측정
***p < 0.001

적으로 책임 있는 여행을 측정하는 여행태도척도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도 군집2(생태관광객)는 상대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여행중 지출한 여행비가 여행지 지역사회의 자연과 문화를 보전하는 데 쓰이는 것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군집2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여행전후 모두 여행지 주민의 생활 방식을 미리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적극 교류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군집2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해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보전을 위한 규칙을 준수하고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환경교육/해설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데에도 군집2는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군집2(생태관광객)는 군집1(자연관광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행 경험을 추구할 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 모두에 높은 관심을 갖고 또 존중하는 방식의 여행을 하고자 하는 도보여행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지리산둘레길 이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여행 특성 그리고 도보여행의 동기와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태도를 기반으로 시장세분화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집단과 각 집단의 특성 차이를 규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도보여행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친환경적인 책임 있는 도보여행문화를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도보여행자는 중년이상의 연령층과 고학력 및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소규모 여행집단으로 여행 전에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지적·미적 추구 동기와 책임 있는 여행자로서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도보여행자 집단 내에서도 더 적극적인 참여와 강한 책임 있는 여행태도 그리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과 이러한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생태관광객 및 자연관광객 집단으로 명명하여 시장을 세분화하였다.

도보여행자의 여행 동기 및 태도의 결과는 도보여행자를 위한 도보길의 조성시에 이들의 요구에 반영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도보여행길 계획 및 조성은 도보여행을 위한 트레일과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도보여행자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보여행자를 위한 트레일과 기반 시설 등은 지적, 미

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도보여행자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전문직/관리직 중심의 직종 특성은 도보여행자들이 일반 대중관광객과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보여행자들이 대상지를 방문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다는 결과는 도보여행자를 위한 정보들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도보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군집분석의 결과, 많은 도보여행자들이 생태관광객의 특성을 나타내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책임 있는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보여행지 개발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간의 의미 있는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창출된 편익이 도보여행 대상지의 보전활동과 지역경제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조사결과상의 지역문화 및 지역사회에 대한 도보여행자들의 호의적 태도 및 성향은 향후 지역기반의 관광활동(community based tourism)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보여행길 조성 시에 관광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이 연계 가능한 거점지역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08년 지리산둘레길이 개장한 후 초기에 방문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대된 도보여행자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대중매체의 간접 광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관광객 혹은 생태관광객의 성격보다 대중관광객의 성격을 지닌 도보여행자의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장 첫째 지리산둘레길을 찾았던 도보여행자의 여행동기나 여행태도는 친환경, 대안관광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둘레길 주변 지역사회의 사생활 침범사태나 쓰레기 등으로 인한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을 볼 때 현재 이루어지는 도보여행자의 특성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동일 대상지를 방문하는 도보여행자에 대한 특성 조사를 통해 개장 초기의 도보여행자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는 향후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향후 연구방향은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 및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도보여행을 단순히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수요충족을 위한 전략개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보여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보여행자에 대한 환경적 모니터링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활동과 그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연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전략으로 도보여행이 역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강미희, 김남조, 최승담. 2002. 대중관광객과의 비교를 통한 생태관광객의 차별적 특성 규명 : 여행 동기 및 태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7(2): 157-176.
- 강미희, 김성일. 1996. 설득메시지가 공원이용규제정책에 대한 이용자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임학회지* 85(1): 24-33.
- 강미희, 박찬우, 이영주, 김성일. 2006. 제주도를 방문한 대안관광객의 차별적 여행특성 규명. *한국임학회지* 95(6): 759-768.
- 강미희. 1999. 생태관광객의 여행 동기 및 태도: 척도구축과 관광객유형별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동우. 2000. 관광자의 환경 보존의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24(2): 47-71.
- 고동우. 2006. 관광자의 친환경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위협소구 환경광고의 영향. *관광학연구* 30(2): 139-160.
- 김성일. 1991. 자연휴양지 내의 환경오염행동에 대한 이해: 논리적 행위이론의 이용으로. *한국임학회지* 80(1): 20-31.
- 김정아. 1996. 트레킹코스 조성계획: 고성군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과급효과 분석.
- 산림청. 2007. 등산지원기본계획안.
- 송영민. 2005. 계획행동이론(TPB)을 통한 생태관광가이드라인의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473-487.
- 송용섭. 1987. 소비자행동: 마케팅에의 응용. 범문사. 서울.
- 여호근, 강승구. 2002.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환경인식에 따른 관광태도의 차이. *관광레저연구* 14(1): 69-84.
- 여호근, 박봉규, 윤태환. 2009. 생태관광 시설 요구도와 습지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선호도. *관광학연구* 33(7): 247-267.
- 오구균, 권태호, 이준우, 유기준, 최송현. 2005. 숲길 정비 매뉴얼. 수문출판사.
- 유광민, 김기완. 200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농촌관광 동기, 농촌관광지 선택요인,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선호도의 차이 분석. 2008 부산국제관광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관광학회 596-615.
- 정 휘. 2008. 광역생태탐방로 노선선정 계획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권. 1998. 레크레이션 선택행동의 체계적 이해: 계획행동이론의 적용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5(4): 18-29.
- 환경부. 2007.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연구.
- 自然環境研究セソター. 2002. 平成13年度 國立・國定公園における登山道のあり方検討調査報告書, 環境省自然環境局.
- Ajzen, I. and Driver, B. 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207-214.
- Ajzen, I. and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Beard, J.G. and Ragheb, M.G. 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219-228.
- Bragg, E.A. 1996. Towards ecological self: Deep ecology meets constructionist self-theor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93-108.
- Calvo, D. 1971. The role of tourism in Caribbean development. Study Paper No. 8. Barbados: Caribbean Ecumenical Consultation for Development.
- Catton, W.R., Jr. and Dunlap, R.E. 1980. A New Ecological Paradigm for Post-Exuberant Soci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4: 15-47.
- Cha, S., McCleary, K.W. and Uysal, M. 1995. Travel motivations of Japanese overseas travelers: A Factor-Cluster segmentation approach. *Journal of Travel Research Summer* : 33-39.
- Dann, G.M.S. 1977. Anomie, ego-enhancement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4(4): 184-194.
- Dearden, P. and Harron, S. 1994. Alternative tourism and adaptive chan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 81-102.
- Diamantis, D. 1998. Consumer behavior and ecotourism produ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2): 515-517.
- Driver, B.L. 1977. Item pool for scales designed to quantify the psychological outcomes desired and expected from recreation participation. Unpublished report. U.S.D.A. Forest Service Rocky Mountain Experiment Station, Ft. Collins, Colorado.
- Fishbein, M. and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Reading, MA.
- Hair, J.F.Jr., Black, W.C., Babin, B.J., Anderson, R.E. and Tatham, R.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Pearson-Prentice Hall. pp. 610.
- Iso-Ahola, S.E.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tourism. Dubuque: Wm. C. Brown Company.
- Kang, Mihee and Moscardo, G. 2006. Exploring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Responsible Tourist Behaviour: A Comparison of Korean, British and Australian Tourist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1(4): 303-320.
- Kretschman, J.A. and Eagles, P.F. 1990. An analysis of the motives of ecotourists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Canadian population. In : Proceedings of the third symposium on social science in resource management. May 16-19: 144-145. Texas A&M University.
- Mansfeld, Y. and Ginosar, O. 1994. Evaluation of repertory grid method in studies of local's attitude toward tourism development proces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3): 957-972.

38. Mayo, E.J. and Jarvis, L.P. 손대현과 장병권 역. 1991. 여가관광심리학: 관광산업의 마케팅과 판매기법 적용. 백산출판사, 서울.
39. Meric, H.J. and Hunt, J. 1998. Ecotourists' motivation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case of North Carolina Travel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Spring): 57-61.
40. Parrinello, G.L. 1993. Motivation and anticipation in post-industri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233-249.
41. Woodside, A. and Jacobs, L. 1985. Step two in benefit segmentation: Learning the benefits realized by major travel marke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4(fall): 7-13.
-
- (2011년 4월 1일 접수; 2011년 5월 16일 채택)